과거로부터 배우는 교훈

01-07-2018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과거 자체로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교훈과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지혜는 과거의 실패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자주 깨닫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충북 제천의 어느 스포츠 센터 화재로 인해 스물아홉 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를 접하며 밀려오는 슬픔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왜 세상은 이런 비슷한 유의 사고를 반복적으로 겪어야 하는지,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분석은 잘하고 원인은 잘 따지지만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답답한 질문만 마음속에 머물렀습니다. 사고 원인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재료로 건물 외벽을 쌓았다는 것, 스프링클러가 356개가 있었어도 배관이 잠겨 있어서 작동하지 않아 화재 진압에 아무런 역할도 못한 것, 탈출구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 주변을 좁게 막아놓아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 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 소방차가 들어오는 데 불법 주차가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점, 소방점검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안전 점검에서는 이상하게 통과가 되었다는 점, 충격적인 사실은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물 주인의 아들이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이상 없다’는 판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화재도 화재 이지만, 화재 후에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부실한 총체적인 문제들이 이번 사고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저런 사고를 접할 때 마다 그곳에는 항상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위법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물질주의가 결국은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쉽게 앗아가는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원칙을 지키는 것은 언젠가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해,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에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포스텍 건물은 컵 하나 떨어지지 않을 정도도 안전했다고 합니다. 당시 포항제철의 고 박태준 회장이 수백 년에 한 번 있을 지진에도 대비하자는 각오로 철저히 원칙에 충실한 건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이런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과거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분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삶에서 고쳐야 할 것을 고치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새 해를 맞이한 우리는 신앙 원칙과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았으면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고치고 다듬어 분명하게 교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기뻐하실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갑시다.